

# 최재범 대표,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동참

(귀뚜라미)

## 위생관리·거리두기 동참 중요성 강조

귀뚜라미는 최재범 대표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에 동참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재범 대표는 이날 귀뚜라미보일러 공식 SNS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는 문구를



귀뚜라미 최재범 대표가 코로나19 극복 기원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에 참여하고 있다. /귀뚜라미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대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유정범 회장과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문쾌출 회장을 지목했다.

최재범 대표는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위생관리와 통제조치는 직원의 건강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시 한번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불가피하게 고객과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귀뚜라미보일러 서비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3기 신도시의 과제



기지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가성비 좋은 식당은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먹는 게 몸에 좋지 않을까?

3기 신도시는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시키며 진입장벽을 낮췄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으로 4억원은 기대할 수 있으니 생전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부동산 수요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가성비는 없다.

너도나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야단법석이다. '3기 신도시'라는 식당에서 선보이는 요리는 무엇이 있는지 맛보기 위해 2주에 걸쳐 7개 도시 내 택지를 둘러봤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택지들은 공통적으로 '교통'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철도 교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히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철도 노선 신설 계획에 진전이 없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임학

역과 박촌역이 있지만 택지지구 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에 지하철 신설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입주하게 될 신도시 주민을 고려해 철도 노선 신설을 결정짓는 게 먼저가 아닐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알려진 남양주와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노선이 아닌 9호선 연장을 염원하고 있다. 교통 수요를 감당할 지하철이 없다면 훗날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강서, 인천, 부천에서 나오는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을 택지 안에 그대로 두게 되며 환경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주민들은 물론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지 의문이었다. 안산 장상지구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다.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소음도 심각했다.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산적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3기 신도시가 수요자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기를 바란다. /ywj964@

# 청호나이스, 위급한 생명 구한 플래너에 감사패

익산지사 안지호 플래너, 50대 남성 구해

청호나이스 소속의 플래너가 사람 목숨을 구해 감동을 주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최근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청호나이스 익산지사 안지호 플래너(사진)에게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지호 플래너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5분께 자택인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을 지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남성은 목을 짊어주는 줄을 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승용차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안 플래너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한 뒤 집으로 올라가 가위를 챙겨 내려왔고 집에 있던 아버지 역시 도움을 주기 위해 안 플래너를 따라 내려왔다. 안 플래너와 아버지는 남성의 목에 감겨있던 줄을 끊어낸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다. 잠시 후 119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고 안씨 부자의 신속한 대처로 50대 남성은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안 플래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관심을 받아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운세 11월 25일 (음 10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48년생** 도움 줬던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돕는다. **60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간직하여 진행하자. **72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자. **84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날.
- 37년생** 여럿의 견해가 다들 옳지만 의견통일을. **49년생**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자출. **61년생** 기대가 너무 높아 만족도가 낮다. **73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진다. **85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발전이 더디다.
- 38년생**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처럼 형성된 재산. **50년생** 비대한 자라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62년생** 발등을 찍는 건 도끼 탓이 아니라 내 탓. **74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식구들을 잘 챙기자. **86년생** 풍요가 기대된다.
- 39년생** 덕을 베푸는데 스승이 따로 있었는가. **51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건어 간다. **63년생** 주변을 확고히 해야 인연도 이어진다. **75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힘들다. **87년생** 요행수를 바라지말자.
- 40년생**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아 오늘날 가난한 것. **52년생** 십 년간 모아 둔 비상금이 적절하게 쓰인다. **64년생** 인생이 어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78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8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 41년생** 어떻게든 기사화생이다. **53년생** 선부른 증여는 결정하고 후회한다. **65년생** 하나를 뿌리고 세 개를 얻는 날로 기쁘다. **77년생**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말아야 결과가 무난하다. **89년생** 불을 보듯 뻔한 거짓말에 조심.

- 42년생**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 날. **54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6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78년생** 머리만 민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90년생** 달빛이 비치는 것을 훔볼 삼아서 공부할 것.
- 43년생** 가족이 화합이 안 되면 대립과 반목이다. **55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 **67년생** 직원을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79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91년생**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약속을 어기지 마라.
- 44년생**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56년생** 붉은색과 4의 숫자가 행운. **68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80년생** 주변에서 고마움의 선물이 들어온다. **92년생** 남중지주라 했으니 분발하라.
- 45년생** 고양이에게 방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진. **57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69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81년생** 일시적인 앞은 꺾는 멀리하도록. **94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에서 인기.
- 46년생**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 **58년생** 배우자가 나에게서 큰 조력자. **70년생** 옛 연인을 꿈에도 그리워 잊기가 어렵다. **82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94년생** 재주 기술이 다양하다.
- 36년생** 가계부를 써보고 돈 지출을 정리해볼 것. **48년생** 남이 보기에는 요행수로 성공한 것 같으나 진정 노력을 했다. **60년생** 미련해 보이나 신용이 우선. **72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출 것. **84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도록.

# 김상희의四季 조금은 둔감하게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감한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둔감하다. 직장상사가 지나가면서 "오늘 옷차림이 멋지네" 하면, 민감한 사람은 '혹시 비난 아닌가. 아니면 지적하는 건가.' 걱정한다. 반면 둔감한 사람은 '진짜 멋있나 보다' 하면서 기분 좋아한다.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피곤한 나날을 보내기 마련이다. 자잘한 것까지 모두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자책하는 일도 많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일부 심한 사람은 우울증세를 부를 수도 있다. 남의 탓만 하거나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 짐을 짊어진다. 사주로 보면 귀문살이 있는 사람이 다양하게 민감한 성향을 보인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좋아서 자기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올린다. 관이 너무 왕성한 사주일 때 자기를 극하는데 이는 자기 학대나 비하로 이어지는 일이 있다. 그 결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일단 남의 말에 필요 없는 고민을 안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서로 자기 생활에 바쁘다. 어쩌다 남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는 그냥 해보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남의 말에 고민하지 말길 바란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대응 자체를 안 하면 된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서 대응을 안 하면 어떤 일이든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 자기가 민감한 성격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감성과 예술적 재능이라는 강점이 있음을 생각해 보라. 장점을 잘 살려 내면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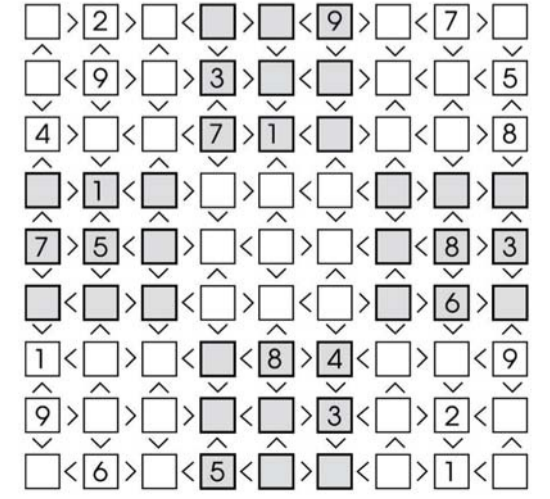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 학습법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9	2		8	B		C	1		
1		3		C	4	7	A				8
8	A	C	7	1		2	6		B	3	4
		4	3	5		1		8	7	6	
5		7	B		3		8		A	2	
2		6		B	7		3	C	9	5	
C	3	8	A		6	5			4		9
	7	B		9		8		5	3		2
	1	2	5		7		4	B	6		
3	2	A		B	4		5	1	8	C	7
	B		8	7	A		9		5		3
		5	C		2	3		6	9	B	



**정답**

V	B	6	9	I	E	Z	8	0	9	P	
E	P	9	Z	6	0	V	Z	8	I	9	
L	0	8	I	9	9	P	B	6	V	Z	
0	8	9	B	P	V	Z	8	9	Z	I	
Z	V	E	9	0	8	I	6	P	B	L	
6	I	P	L	B	9	9	Z	V	8	E	
9	6	0	E	V	Z	B	P	I	9	8	
L	Z	V	P	8	6	E	9	B	L	0	
B	9	Z	8	Z	I	0	9	E	P	6	
P	E	8	6	9	Z	9	I	L	0	V	
8	9	Z	V	Z	P	6	0	9	E	8	
9	L	I	0	E	8	B	V	Z	6	9	

새로운 고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81호